

kiri Weekly

2016.6.27. 제390호

이슈 분석

브렉시트 현실화가 보험회사에 미치는 영향
영국, 자율주행자동차 전용 보험상품 출시

글로벌 이슈

중국 온라인 보험시장의 최근 동향
싱가포르 온라인 채널의 과제

금융시장 주요지표

kiri 보험연구원
Korea Insurance Research Institute

포커스와 이슈 분석은 연구자 개인의 의견이며, 보험연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6길 38 (여의도동 35-4) 8층 보험연구원 (문의 : 변철성 수석담당역 / 02-3775-9115)



브렉시트 현실화가 보험회사에 미치는 영향

임준환 선임연구위원, 전용식 연구위원

요약

■ 브렉시트(Brexit) 현실화로 영국뿐만 아니라 글로벌 금융시장이 폭락세를 보이고 있음. 브렉시트 여파로 EU 탈퇴가 다른 국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져, 향후 상당기간 동안 금융시장의 공포가 전 세계 금융시장을 지배할 것임. 이러한 여파는 우리나라 금융시장에도 즉각적으로 반영되어 원화가치 하락 및 주가 폭락과 더불어 금리가 하락하고 있으며, 이러한 금리 하락 추세는 이전보다 강해질 것으로 예상됨. 이에 국내 보험회사는 전 세계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장기화될 가능성에 대비하고 이를 토대로 보험상품 포트폴리오, 해외자산 운용전략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보험상품 설계단계에서부터 금리위험을 관리하고 자산 측면에서 금리위험을 헤징하는 소위 매크로 헤징전략을 실행할 필요가 있음. 매크로 헤징은 금리위험액을 경감시킴으로 금융감독자는 요구자본산출액에서 금리위험경감액을 인정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음. 이와 더불어 보험회사는 현재 완전 환위험헤징을 하고 있는 해외자산운용에서도 향후 불확실성이 지속될 것으로 판단되면 부분 환헤징전략 도입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브렉시트(Brexit)가 현실화되면서 영국뿐만 아니라 글로벌 금융시장이 동시 다발적으로 폭락세를 보이고 있음.

- 2016년 6월 24일 영국 파운드화는 1985년 이후 최저 수준인 파운드당 1.3467달러 수준으로 급락함.
 - 또한, 일간 기준으로 전일대비 약 7.3% 하락하였는데, 동 수치를 연율화하면 1,825% 수준임.
- 일본 엔화 및 미국 달러화 가치는 전일대비 각각 6.7%, 3% 상승하였는데, 이는 금융투자자들이 안전자산 선호 경향으로 엔화 및 달러화를 매입하였기 때문임.

■ 또한, 브렉시트 여파로 다른 회원국(덴마크, 프랑스 등)의 EU 탈퇴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져, 향후 상당기간 동안 금융시장의 공포가 지속될 것으로 보임.

- 세계 금융시장 불확실성의 정도는 투표 자체의 결과보다는 EU 체제의 내재적 불안정성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불안은 상당기간 동안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 EU 체제의 내재적 불안정성으로 유럽 단일 예금보험공사 설립 및 그리스 국가부채 관리 등과 관련된 회원국 간 의견 불일치가 상존하고 있음.
 - 브렉시트 현실화로 유로화체제 유지에 상당한 회의론이 제기되어, 향후 유로화에 대한 헤지펀드의 투기적 공격이 거세질 것으로 보임.
- 이러한 여파는 우리나라 금융시장에도 즉각적으로 반영되어, 원화가치 하락 및 주가 폭락과 더불어 금리가 하락하고 있으며, 이러한 금리 하락 추세는 이전보다 강해질 것으로 예상됨.
- 원화가치 및 주가 하락과 이에 따른 금리 하락은 브렉시트 여파로 안전자산 선호심리가 강해짐에 따라 투자자들이 원화 및 주식을 투매하고 안전자산인 국채나 현금으로 도피하는 현상의 결과임.
 - 원화가치는 6월 24일 3시 기준 달러당 1,179.9원으로 전일대비 29.7원 폭락하였음.
 - 주식시장의 코스피200 변동성지수도 전일대비 장중 17포인트에서 24포인트로 40% 이상 폭등함.
 - 향후 외환시장, 주식시장 및 국채시장에서 발생하는 안전자산 선호현상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어, 금리 하락 추세가 보다 강해질 것임.
- 이에 국내 보험회사는 전 세계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장기화될 가능성에 대비하고 이를 토대로 보험 상품 포트폴리오, 해외자산 운용전략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 금융시장 불확실성의 장기화는 안전자산 선호경향 확대로 국채금리가 장기적으로 하락하여 국내 보험회사의 이차역마진 부담은 더 확대될 것으로 보임.
 - 이차역마진 부담가중은 보험회사의 자본확충노력을 더욱 어렵게 만들 것으로 예상됨.
 - 보험회사는 보험상품 설계단계에서부터 금리위험을 관리하고 자산 측면에서 금리위험을 헤징하는 소위 매크로 헤징(macro hedging)¹⁾ 전략을 실행할 필요가 있음.
 - 매크로 헤징은 금리위험액을 경감시키므로, 금융감독자는 감독차원에서 요구자본산출액에서 금리 위험경감액을 인정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매크로 헤징은 현재 감독차원에서 공식적으로 헤징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음.
 - 감독자가 이를 인정해 주면 보험회사의 매크로 헤징 유인이 보다 제고될 것으로 판단됨.
 - 해외자산운용은 대부분 채권 또는 채권형 투자를 통해 이루어져 완전 환위험헤징을 하고 있는데, 향후 불확실성이 지속될 경우 부분 환헤징전략(currency overlay)²⁾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kiri

1) 보험부채에 내재하는 금리위험을 자산 측면에서 금리스왑, 스왑선 등 파생상품을 통해 헤징하는 형태를 매크로 헤징이라 함.
 2) 부분 환헤징전략이란 불확실성이 지속될 경우 강세달러에 의도적으로 노출시켜 환차익을 얻을 수 있는 전략임.